

# 건축문화 RANG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8.8.105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 사랑

## 광주전남건축가회, '제1회 광주건축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지난 7월 11일... 총 66명 입상, 강현구 회장 참석하여 우수상 수상자 시상

## 광주건축사회의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개선요구, 언론에서 심도 있게 다뤄

KBC 광주방송과 CMB 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집중 보도

## 광주건축사회,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법규 및 교육 안내 나서

8월 10일 시행되는 법규 공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광주지원센터 교육 진행도 알려

##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태풍 수해지역 주민 위로 방문

지난 7월 2일 해남군 문내면 선두마을에서... 피해주민 지원사항 의견청취

## 전남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간담회 가저

지난 7월 12일 장흥군 안양면 일원에서... 감리제도 관련 법 제도개선 의견 청취

# Editorial

## 啐啄同時(줄탁동시)

전라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21곳 접수받아

광역공모 18곳 중 5곳 선정키로...중앙공모 3곳은 국토부서 최종 결정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사용승인·학생·건축 사진 부문,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현장 및 우편 접수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허가신청 시 옥상조경·벽면녹화 권장 협조 요청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원사에 공문으로 공지하여 협조 당부

전주시, 8급·9급 기술직 공무원 대상 '제4차 기술아카데미' 개최

지난 7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술직 공무원들 전문성 높일 것 기대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건립공사 설계공모

## 인터뷰 \_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전남대 건축학부 고성석 교수, 산업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에 임명

지난 8월 1일 전남대 공대 2호관 명명홀에서 취임식 가저

## 책 소개

상실의 시대 (원제 노르웨이의 숲)

# Editorial

## 啐啄同時(줄탁동시)

이는 알껍데기를 안에서 두드리는 아기 새의 어린 부리와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깨주는 어미 새의 단단한 부리가 만나면 새 생명이 깨어난다는 뜻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 너무 놀기를 좋아해서 해가 저도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었다. 특히 지금 같은 8월의 무더운 여름이면 동네 아저씨들과 냇가에서 밤낚시를 즐겼고, 친구 집 마당에서 자치기를 즐겨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집에 일찍 들어오게 하려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밤에는 아이들만 데려가는 귀신이 돌아다니나"라고 말하곤 했었다. 실제 어른들과 얘기하다 보면 도깨비와 물귀신 이야기를 밤늦도록 들곤 했었다. 그 뒤부터는 밤늦게 돌아다니기가 무서웠고 겁부터 나게 되니 집에 일찍 들어오곤 했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밤이 되면 귀신이 무서워 밖에 한 발짝 나가기가 힘들었고, 부모님이 시키는 심부름은 커녕 외딴 화장실 가기도 무서워하는 겁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나를 보고 어머니는 부적 같은 것을 만들어 주었다. "이 부적이면 귀신도 맥을 못 쏜다." 그때부터는 밤에 밖에 나갈 때 부적을 갖고 다녀야 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집에 일찍 들어오게 하려고 '귀신'이라는 거짓을 만들었고, 또 아들이 밤에 용기 내라고 '부적'이라는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야 했다. 물론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잘되라고 하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하셨을 것이다.

필자는 1994년도에 건축사 면허를 받고 1995년 3월에 개업하였다. 첫 번째 시험에 낙방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을 봐야 하는데, 경력이 3개월 누락되어 2차 시험을 못 치르게 될 상황이 되었다. 설계사무소 경력은 충분하였으나 건축사협회 등록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3개월 정도 경력이 누락된 것이다. 그 잃어버린 3개월을 찾으려고 건강보험증명서와 근무했었던 설계사무소의 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2차 실기만 치르게 되면 자신만만하게 합격하리라 생각했었다. 경력 3개월을 증명하지 못해 여기서 주저앉아야 할 것인가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낮이 되면 이곳저곳 백방으로 뛰면서 하소연해 보기도 하였으나 협회에서는 모두가 거절이었다.

그때 아내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하였다. 믿음이 없었던 나는 아내의 간곡한 요청으로 밤이면 기도를 간절히 하기 시작하였고, 2차 최종 서류 마감 이틀 전에 건축사협회에서 이사회를 열어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2차 시험을 겨우 치를 수 있게 되었고, 그때 건축사면허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그때의 믿음은 부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그 당시 건축사면허증이 나에게선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건축사만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사 면허증이 만능의 도구로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모든 이상을 채워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24년 전 부적과도 같았던 건축사 면허증의 상징성이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것일까? 이제는 벌써 환갑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열심히 살아왔던 과거들이 한순간에 스쳐 간다. 하나의 맡겨진 소명, 건축주의 의뢰자로서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 결과 어느 정도 나만의 고심 어린 건축작품을 남겨 놓았을 때 희열감을 안겨주지만 받았던 설계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린다.

건축사로서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왔지만, 때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설계업무를 하여 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세상을 둘러보니 의로운 사람이 곤궁을 당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세상에서 악인이 의인을 헐박하고 공의가 땅에 떨어진 세상에서 건축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취득한 건축사면허인데, 건축설계비 몇 푼 더 받아보겠다고 낮은 설계비와 내 자존심을 바꿔야 할지 심한 갈등에 몸부림치는 요즘이다. 용도변경이나 증축설계를 하다 보면 왜 그리 설계비가 비싸냐고 의뢰인에게서 비아냥 아닌, 힐난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껍데기 속의 병아리와 그 알껍데기를 밖에서 쪼아주는 어미 닭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알껍데기 속에 있을 때는 나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지만, 껍데기에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게 도와주는 어미 닭처럼 건축사와 건축사협회, 또 나와 동료 건축사간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추원호 논설위원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대표 건축사 / 전북)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유행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쌍촌동근린생활시설**

고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광주 서구 금호동 진흥더루벤스 상가동 1층 102호  
 Tel. 062-385-5407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293-1 / 대지면적 : 251㎡ / 건축면적 : 147.57㎡ / 연면적 : 326.51㎡ / 건폐율 : 58.7928%  
 용적률 : 130.0837%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스타코, 금속, 유리



**광주전남건축가회, '제1회 광주건축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지난 7월 11일... 총 66명 입상, 강현구 회장 참석하여 우수상 수상자 시상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박홍근)는 '제1회 광주건축대전' 시상식을 지난 7월 11일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회관에서 개최하고 14일까지 수상작 전시를 진행했다. 시상식 당일 공모전 최종심사를 열어 대상에 박민균 씨를 비롯해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3명 등 총 66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일반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던 박민균씨의 'IC Marina Terminal'로 1980년대 만들어진 곡물창고, 배와 바다 그리고 마리나 터널을 대상으로 형상화했다. 최우수상에는 문도연 씨의 'ONE OCEAN, VARIOUS PANORAMA'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박정주 씨의 'Link of voyeuristics'와 박은진 씨의 '북:큐레이션'(유화적인 디자인을 통한 책문화공목 계획안) 및 김버리 씨의 '소소한 변화'(광주역 유휴 부지를 활용한 노후 주거지 정비 계획안)가 각각 선정됐다.

이어 장려상은 이상호 씨의 'Quality Of Life'(도심 학원촌 주거공간에서의 노마디즘적 특성의 공간 역할)과 주미정 씨의 'The bunker', 김찬술 씨의 'LINKAGE 월곡동 복합주민센터 고려인과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 김유민 씨의 '선탄장 리뉴얼

아트센터'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은 우수상에 선정된 박은진 씨에게 직접 시상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의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개선요구, 언론에서 심도 있게 다뤄**

KBC 광주방송과 CMB 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집중 보도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7월 20일 광주지역 유력 언론사에 각 구청별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의 조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본지 2018년 7월 104호 3면 참조)를 배부했다.

배부 결과 KBC 광주방송(2018년 7월 21일 KBC 모닝 730)과 CMB 광주방송(2018년 7월 27일 뉴스와이드), 광주일보(2018년 7월 23일 자 8면), 전남일보(2018년 7월 26일 자 8면) 등에서 집중 보도하여 구청의 건축 민원 처리 능력과 들쭉날쭉한 처리 기간에 대해 질타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CMB 광주방송의 경우 강현구 회장을 직접 전화 인터뷰하여 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및 절차 개선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 시민들과

이젠, eGen을 꺼내쓰자.  
 이젠, eGen을 체험하자.

COMING SOON  
문의 031 789 4119, 4183

2018년 하반기, 프로그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건축사님들과 함께 구조기술력 향상 교육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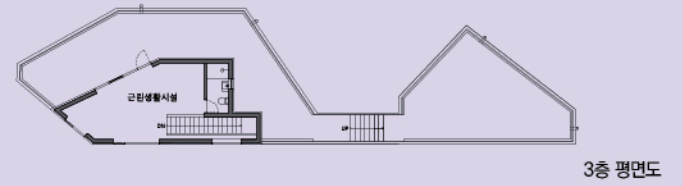


쌍촌동(오래된 버드나무 두 그루가 있던 마을이라는 곳에서 유래됨)은 상무지구와 연계해 있고 오래된 구도심에 속하며 부분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대지 주변은 수많은 원룸과 새로 재개발되는 아파트단지 그리고 옛 단독주택이 주변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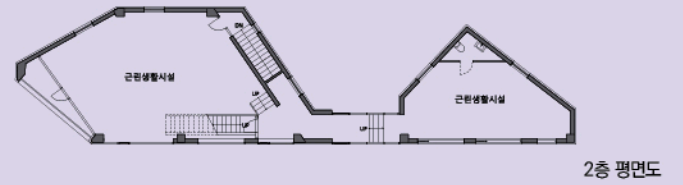
건축주는 1층은 임대를 하고 2, 3층을 사무실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였다.

배치와 내부공간 구성은 길고 경사진 W형 대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임대 공간을 나누고 임대공간도 경사의 높이에 맞추어 높이 조절을 하였다. 또한 그 단차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역이 분리가 되어서 분리된 영역은 2층 사무실 공간에서 유리 브릿지를 통해 연결한 평면을 계획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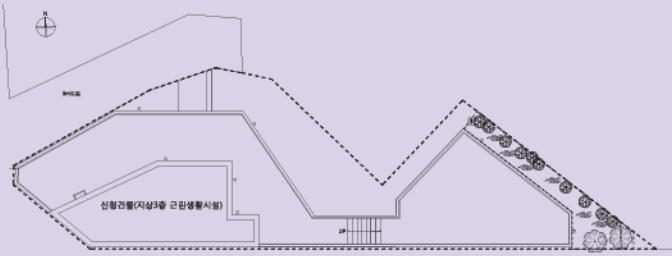
도시의 어느 한 곳에 자리 잡을 하얀색 건축물, 도시공간 속에 건축은 건축가와 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기대를 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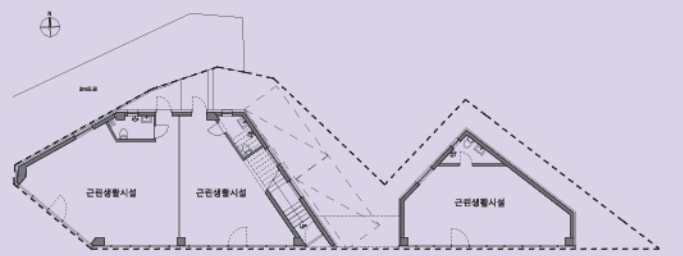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이다. 강현구 회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건축과 관련한 시민들의 경제활동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에 보도된 방송 및 신문기사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의 다시보기와 지면보기에서 재시청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법규 및 교육 안내 나서**  
8월 10일 시행되는 법규 공지... 지체장애인의시설 광주지원센터 교육 진행도 알려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8월 10일 개정되어 시행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문 시행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회원사에 알렸다.

특히 건축 업무와 관련한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이 개정되어 반드시 관련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지체장애인의시설 광주지원센터(교육문의 : 062-529-3329)에서 관련 교육도 진행됨을 알렸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98921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 역대 광주건축상 2차년도 조사 및 제22회 광주건축상 사업 실시**

연속사업에 따라 지난해부터 활동해온 박동준 위원장 외 운영위원 5인이 진행...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2016년 말 광주시의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시상되는 건축상에 대해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시킴으로써 건축상의 의미를 살리고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광주시와

논의 끝에 건축상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7월 제21회 광주건축상 운영사업과 1차년도 역대건축상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그해 10월에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된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올해에도 연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주건축상 및 역대건축상 조사사업을 위해 지난 7월 18일 광주건축사회 회의실에 박동준 위원장 외 운영위원 5인이 1차 회의를 가졌다. 운영위원들은 향후 3개월간 역대건축상 수상작에 대한 세부조사 실시와 제22회 광주건축상 공모를 진행하여, 그 결과물을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될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때 시민들에게 선 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광주건축상 공모에 대하여 우수한 광주시의 건축작품들이 대거 발굴

될 수 있도록 응모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건축사에 대한 상금을 늘리는 등 광주건축상의 위상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은 "많은 건축사들께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들에게도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사업의 운영위원 명단이다.

구분	성명	사무소명
운영위원장	박동준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운영위원	박상구	건축사사무소 더곰감
"	정관성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	최병률	레종 건축사사무소
"	김은자	건축사사무소 아도
"	김도석	미르 건축사사무소

**제22회 광주건축상 공모 개최 안내**

- 응모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이 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다만 광주시에서 이미 시상 받은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작품에 한합니다.
  - 시상구분 및 부상
    - 시 상
      - 주 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비주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부 상 : 설계자 ⇒ 상패 및 상금, 시공자 ⇒ 상패, 건축주 ⇒ 건축물에 동판 부착
      - 금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1,000,000원]
      - 은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400,000원]
      - 동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100,000원]
  - 제출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8. 9. 10. (월) ~ 9. 28 (금) 18:00
    -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6)
- ※ 제출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98771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法家 공증인간 법가**

- 변리사
-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 광주변호사회 총무이사
- 법정문화발전협의회 위원
-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대표변호사  
**박 철 / 朴 哲**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7(지산동)  
T . 062-233-8070  
F . 062-223-5376  
M . 010-6678-1551  
E . pcgranfa@hanmail.net  
www.법가.com

**광주 회원동정**

- 부고
  - 윤익상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건 / 모친상 - 07월 17일(화)





**순천 팜야야구장**  
박병열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전남 순천시 지림길 30, 2층 Tel. 061-742-0231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팜야주경기장 북측 일원 / 대지면적 : 23,777㎡ / 건축면적 : 857.18㎡ / 연면적 : 992.45㎡ / 건폐율 : 3.60% / 용적률 : 4.17%  
용도 : 운동시설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THK0.7 알루미늄볼소코팅 평팅기, 경질우레탄보드위외단열투탈시스템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태풍 수해 지역 주민 위로 방문**  
지난 7월 2일 해남군 문내면 선두마을에서... 피해주민 지원사항 의견 청취



전남건축사회 회장 조연준은 지난 7월 2일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 위치한 선두마을을 방문하여 태풍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지원사항 및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조연준 회장을 비롯하여 장세윤 감사, 해남지역건축사회 정용재 회장, 해남군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조연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농어촌이 많은 우리 전라남도에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건축 전문가단체로서 수해 피해지역 복구에 아낌없는 인력 및 물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간담회 가저**  
지난 7월 12일 장흥군 안양면 일원에서... 감리제도 관련 법 제도개선 의견 청취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7월 12일 전남 장흥군 안양면 한 카페에서 대



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석정훈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국원식 이사, 이남식 사무처장, 강주석 정책법제실장, 조연준 전남 회장 외 전남건축사회 임원 16명이 참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석정훈 회장이 전남도회 임원들에게 감리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고 건축 관련 제도개선부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라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21곳 접수받아**  
광역공모 18곳 중 5곳 선정키로... 중앙공모 3곳은 국토부서 최종 결정

전라남도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자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올해 사업에 광역 공모 18곳, 국토교통부 공모 3곳 등 모두 21곳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1곳이 늘었다고 밝혔다.

광역 공모 18곳은 우리동네살리기 순천, 보성, 진도 3곳과 주거지원형 나주, 광양, 완도 3곳, 일반근린형 여수, 나주, 담양,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무안, 함평, 영광, 장성 12곳이다.

국토교통부 공모는 3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여수 주거지원형과 나주 중심시가지지형 2곳과 광양시가 제안한 중심시가지지형 1곳이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공모 3곳 중에서 1~2곳 선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조연준 외 회원 300여 명

대표전화 : 061-285-7563~4 FAX : 061-285-7567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홈페이지 : <http://jnira.ki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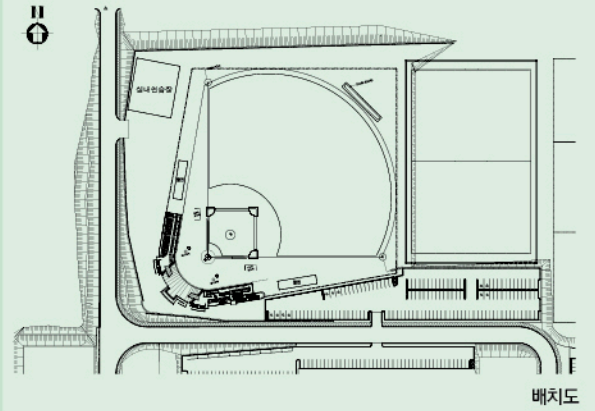
**이 곳의 전남업체 광고주를 모십니다.**

- 광고금액 : 350,000원/월 1회(6개월 이상 광고 시 할인제공)
- 광고크기 : 가로 = 23.0cm, 세로 = 8.0cm
- 배 부 처 : 전남·광주·전북지역 건축사무소, 기업체 등 2,000여 곳
- 광고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 TEL. 061-285-7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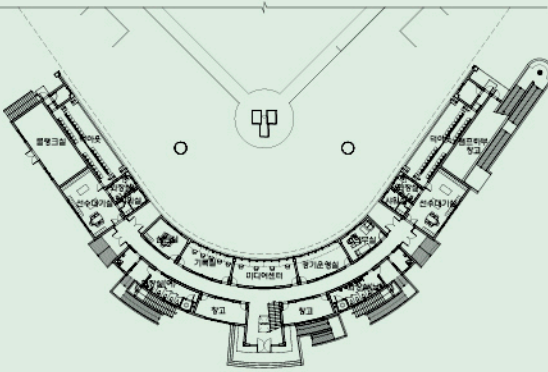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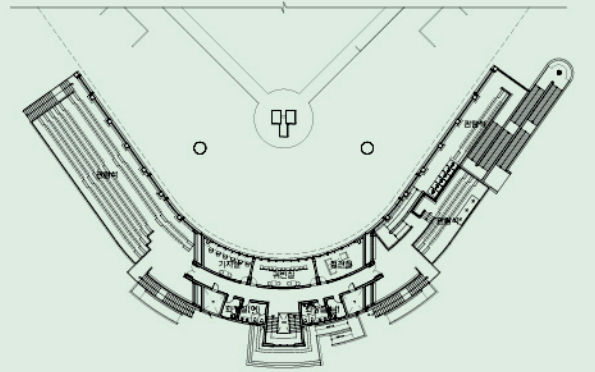
모든 건축물은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체육시설은 더욱 그렇다. 이러한 공공건축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유니버설 디자인 일 것이다. 비록 작은 규모의 시립야구장이지만 유모차, 휠체어가 모든 공간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넓고 안전한 경사로를 계획하였고 1층과 2층 모두 가족 화장실과 장애인 관람석을 두어 이용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였다. 학생야구단, 생활체육 동호인은 물론이고 프로 야구 선수들의 동계훈련까지 염두하여 불펜과 덕아웃, 기록실, 미디어센터 등을 갖추고 그라운드 공인규격을 적용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광역 공모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국비 400억 원을 이미 배정받았으므로, 5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전국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2018 도시재생뉴딜 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 참여 및 삶의 질 개선, 도시경쟁력 회복 등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완료 후 국토교통부 중앙평가 검증단의 검증을 거쳐 8월 말 공모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개 유형으로 중대 규모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30곳을 직접 선정하고,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3개 유형 70곳은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한다.

### 장흥군, 새 보금자리 '희망가꾸기 28호' 탄생

장흥지역 아름 건축사사무소 정원석 건축사, 인·허가 지원



전남 장흥군은 지난 7월 19일 안양면 주교마을에서 '희망가꾸기 28호', '해피스틸하우스 46호'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새집의 주인공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6세 아동의 가정이다. 군은 화재로 갈 곳을 잃은 가정을 위해 포스코 해피스틸하우스 공모사업에 신청

해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의 계기를 만들었다.

군은 군유지를 제공하고 구세군 자선냄비의 온라인 모금을 통해 기초공사 기반을 조성했다. 포스코에서 건축비용과 대학생자원봉사 재능기부(8박 9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에 참여하며 힘을 보탤다.

장흥지역건축사회(회장 문성식) 소속 아름 건축사사무소 정원석 건축사는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지역건축사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광양시, 첨단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첫발 내딛다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스마트도시 구현방안 마련 나서



전남 광양시가 첨단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 7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방옥길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양시 스마트도시 계획'은 시민의

편익과 도시운영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교통, 환경, 재난,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위해 4차산업과 환경, 에너지, 안전, 문화·관광, 교육, 보건·복지 등 11개 분야에 사물인터넷(IoT)과 모바일 등 첨단 ICT 신기술을 도시기반시설에 접목하게 된다.

계획에는 스마트도시 광양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지역특화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 도출,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및 단계별 이행과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과 도시통합 운영센터 구축과 운영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의 핵심 사업인 '(가칭)어린이 테마파크', '이순신대교 해변공원 조성'과 '도시재생 뉴딜'과의 연계 모델을 개발하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에 역점을 둔다.

시는 오는 8월부터 자료수집과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의 서비스 모델과 스마트도시 구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순천시, 도시재생 청년 창업자 대상 맞춤형 특강에 큰 호응

SNS 활용법 등 청년 상인들에게 홍보 꿀팁 제공

전남 순천시는 지난 7월 23일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입소문 마케팅 전략' 특강을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에서 진행했다.

청년 챌린지숍 등 청년 창업자와 원도심 상인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강의는 매장 차별화 등 실전 홍보 전략을 주제로 각 업체별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진행한 고영창 대표(네오피아)와 김서현 대표(성공제작소)는 상가 차별성 확보와 SNS 홍보를 강조하며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접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홍보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청년 상인들은 "실전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상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문현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더함 / 전남 여수시 도원로 270, 나동 201호
- 전출
  - 김정일 건축사 / (주)이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광주 전출
  - 김갑동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형 → 광주 전출
- 변경(소재지, 상호 및 형태 변동)
  - 국원식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한신 / 전남 순천시 장명로 42
  - 손상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상상:후 / 전남 나주시 상아3길 8-0, A동 343호
- 부고
  - 이경일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7월 01일(일)
  - 정대연 건축사 / 미가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7월 09일(월)



**다함빌딩**

조은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JCN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82, 401호 Tel. 063-283-0979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125-1 / 대지면적 : 1,526.00㎡ / 건축면적 : 302.85㎡  
연면적 : 1,022.35㎡ / 용도 : 근린생활시설, 창고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사용승인·학생·건축 사진 부문,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현장 및 우편 접수**

전라북도와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회장 이길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한 작품을 공모한다고 지난 7월 23일 밝혔다.

건축문화상 작품 모집은 전라북도 내 건축물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승인(일반) 부문과 학생 부문, 건축 사진 부문 등 총 3개 부문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올해 전북 건축문화제는 건축문화상 수상 작품 수를 30점에서 35점으로 확대해 시상할 계획이며, 학생 부문 및 건축 사진 부문에 총상금 1,200만 원이 배정됐다. 응모작품 접수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접수된 작품은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문화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알림마당-공고/고시) 및 전라북도 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 알림광장-공지사항 또는 전북건축문화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허가신청 시 옥상조경·벽면녹화 권장 협조 요청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원사에 공문으로 공지하여 협조 당부**

전주시 덕진구청은 전국이 기상이변 등에 따른 폭염과 가뭄 등의 열섬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지난 7월 25일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태원)로 한 통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건축설계 시 계획단계에서 옥상·벽면 녹화의 효과를 건축주에게 적극 안내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적의무

조경설치 면적 이외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전주지역건축사회는 회원 알림 공문을 통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맑은 공기 국가 선도지역 및 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8급·9급 기술직 공무원 대상 ‘제4차 기술아카데미’ 개최  
지난 7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술직 공무원들 전문성 높일 것 기대**

전북 전주시가 건설공사 현장관리와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건축·토목·지적·녹지직렬 등 기술직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기술직 공무원 기술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그간 상급 기관 감사와 건설공사 기동감찰 등에서 지적되던 사항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허운욱 전주시 기술감사팀장이 강사로 나서 일상감사·원가심사 대상 사업, 공사설계서 작성 요령, 건설공사 현장관리, 주요 감사 지적사항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현장별 사례와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업무 경험이 많지 않지만 기술직 업무에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8·9급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 분야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인 토론에 임했다. 이를 통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철저한 품질·안전관리, 건실시공을 위한 지도 감독 능력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기술아카데미에 참여한 직원들은 지난

**전라북도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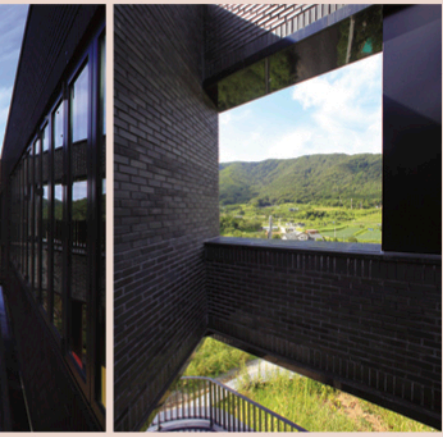
**이 곳의 전북업체 광고주를 모십니다.**

회장 이길환 외 회원 400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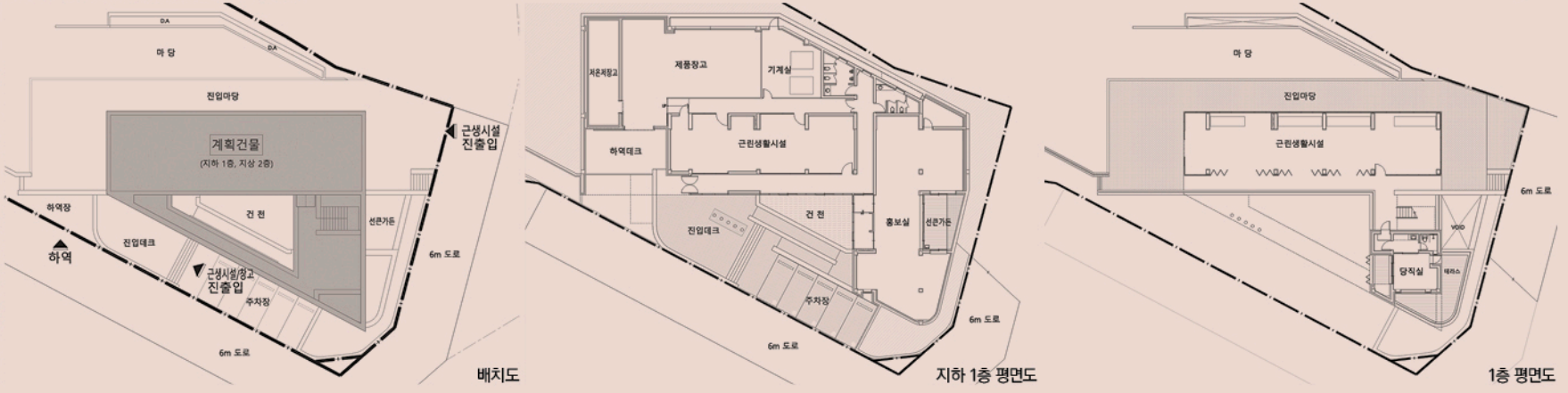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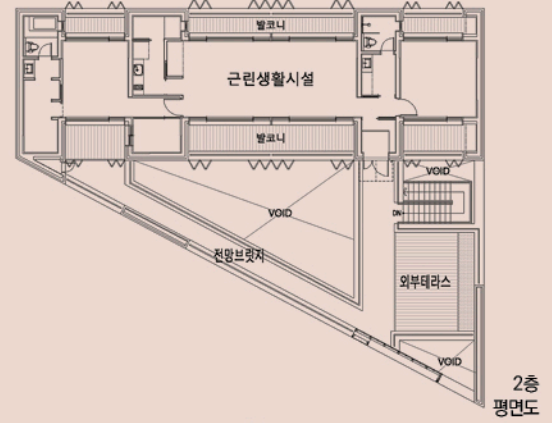
대표전화 : 063-251-6040 FAX : 063-251-6048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서신동) 건축사회관 6층  
홈페이지 : <http://jbkira.kira.or.kr>

- 광고금액 : 350,000원/월 1회(6개월 이상 광고 시 할인제공)
- 광고크기 : 가로 = 23.0cm, 세로 = 8.0cm
- 배 부 처 : 전남·광주·전북지역 건축사무소, 기업체 등 2,000여 곳
- 광고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TEL. 063-251-6040





- 도시 주변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던 이곳은 이제 무질서한 전원주택개발이 한창이다. 난개발된 이곳의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정위(定位)에 대한 질문에서 설계는 출발한다.
- 수평의 질서: 대지의 형상에 대응하는 축, 자연의 질서에 공명하는 축, 둘 사이를 융합하는 축이 서로 마주 닿으면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도형인 삼각형을 만든다.
- 수직의 질서: 3개 층의 중간층을 투명하게 비워두어 아래와 위를 서로 떨어뜨린다. 아래는 단단하게 땅속으로 흡수되며, 위는 부유하여 하늘과 서로 공감한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되 점유하지는 않는다.
- 중심의 질서: 수직과 수평을 관통시켜 하늘과 땅과 건물에 숨통을 틔워주고, 그 중심에 천지의 변화를 담는 그릇으로 건천(乾川)을 만든다.



3월부터 유승수 전주시 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시정 추진 방향 및 업무계획'과 김민호 전주시 도시디자인팀장의 '문화 특별시 전주를 위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최광수 전주시 법무팀 주무관의 '행정·민사소송 대응과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받아왔다.

**정읍시 주관, '2018년도 정읍시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수료식 진행**  
7월 11일~20일, 공동체별 특성 맞는 주민 참여 사업 발굴·역량 강화교육 실시해



전북 정읍시가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 시책 일환으로 운영해온 도시재생대학(1단계) 기본과정 수료식이 지난 7월 20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있었다. 관련해 시는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주민참여사업 발굴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장명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중앙상가 발전협의회, 정읍 문화체험연구회, 코아루 천년가 등 4개 단체다.

각 단체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현안 사업을 직접 발굴했다. ▲장명동주민자치위원회 = 각시다리 음악회, 장명동 장롱 속 추억 사진 찾기, ▲중앙상가발전협의회 = 중앙로 야간조명과 정읍을 상징하는 분수, 청소년 골목 조성, ▲정읍문화체험연구회 = 설레는 정읍여행을 위한 정읍 원도심지역 조사, 골목투어코스 개발, ▲코아루 천년가 = 코아루 패밀리야유회 및 프리마켓, 실버커뮤니티센터, 코아루 갤러리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광주를 찾아 송정역 시장 상가 활성화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및 마을 관광 해설사 운영,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했다. 한편,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주민들은 "도시재생이라는 주제가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교육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 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도시재생 시민포럼 2018' 성황리에 열려**

지난 7월 13일 진행, 주민 자발적 참여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찾기 등 모색



전북 정읍시와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전북과학대학교가 주관한 '도시재생 시민포럼 2018'이 지난 7월 13일 정읍시립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포럼 주제는 '미래를 위한 선택 - 시민 경제도시'이다. 정읍시의 도시재생 방향과 과제를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중점추진사업인 원도심 활성화와 '생명력 있는 도시 정읍'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와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 이광서 아이부키 대표가 주제 발표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를 좌장으로 김한수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 단장 등 5명의 패널들이 나서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특히 포럼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각자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첫 주제발표자인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재생에서 지방 창생으로'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의 해법을 통해 인구문제 대책과 국토 균형 발전의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창생을 위해서는 지역 창생법(마을·사람·일자리) 제정과 지방 창생 특구 선정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입과 결혼·출산·육아, 고용 등의 다양한 지원 시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로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가 '전환의 시대 - 문화가 숨 쉬는 도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대표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방향과 장소 기반의 문화 재생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과 자원, 사람을 융합시킬 수 있는 공간문화 플랫폼이 필요하며, 플랫폼을 통한 지역주체 형성이 협치(거버넌스)와 합의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사회주택을 통한 지역 자산화와 도시재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광서 아이부키 대표는 ▲사회임대주택의 의미 ▲사회임대주택과 공유 가치 등을 설명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보급을 통한 지역 자산화 토대 마련 ▲지역 자산화 토대 마련 공간 거점 조성을 통한 사회주택 플랫폼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전북건축사회 2018년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 시행(☎063-251-6040)**

교육일정	장소	과목	교육시간	강좌 / 강사
09.04 (화)	바울교회 바울센터 2층	전문교육	10:00~12:00	건축사가 알아야 할 노동법 / 박경훈 변호사(법무법인 누리)
		전문교육	13:30~15:30	건축감정업무 실무 / 김석현(평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외래교수)
		전문교육	16:00~18:00	

**전북 회원동정**

- **변경(사무소명)**
  - 김성수 건축사 / 고려 건축사사무소 → 가담·고려 건축사사무소
  - 송태천 건축사 / (유)진성대상 건축사사무소 → 진성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서봉욱 건축사 / 아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시 서암3길 16
  - 이성희 건축사 / 양지 건축사사무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2, 2층
  - 이형철 건축사 / 예원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29
  - 오주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공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로 7, 301호
  - 전성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담쟁이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6
  - 송영섭 건축사 / (유)영화 건축사사무소 / 전북 부안군 상서면 청동길 21
  -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60-3, 5층
- **부고**
  - 조영수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원 / 모친상 - 07월 10일(화)
  - 정석균 건축사 / 정석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7월 23일(월)



##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건립공사 설계공모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협소한 주민센터를 확장하고, 별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간이 없어 광영동 주민센터, 경로당, 새마을금고 등 주변 건물을 임시 활용하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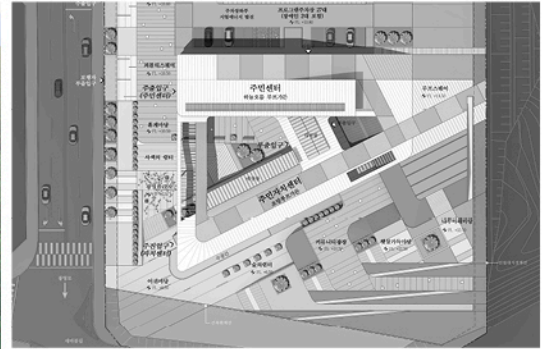
심사위원 : 최정만(㈜자림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이병연(충북대학교), 강성원(검구조기술사사무소), 유진상(창원대학교), 이인기(㈜포럼디앤피), 이성재(홍익대학교), 박병엽(박병엽 건축사사무소), 심우석(우성 건축사사무소), 노상철(광양시 건축과)

-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H1 ब्ल록
- 대지면적 : 9,835.0㎡
- 연 면 적 : 2,330.0㎡(±5% 범위 내)
- 층 수 : 지상 3층 이내
- 용 도 : 공공업무시설
- 공 사 비 : 7,059백만 원

당선작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건축사사무소 가온  
 가 작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 당선작

이주경 건축사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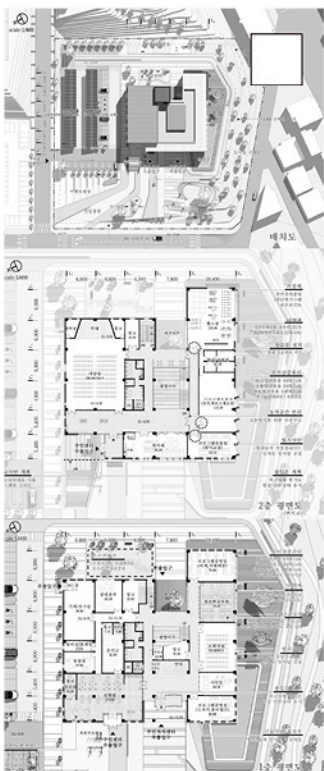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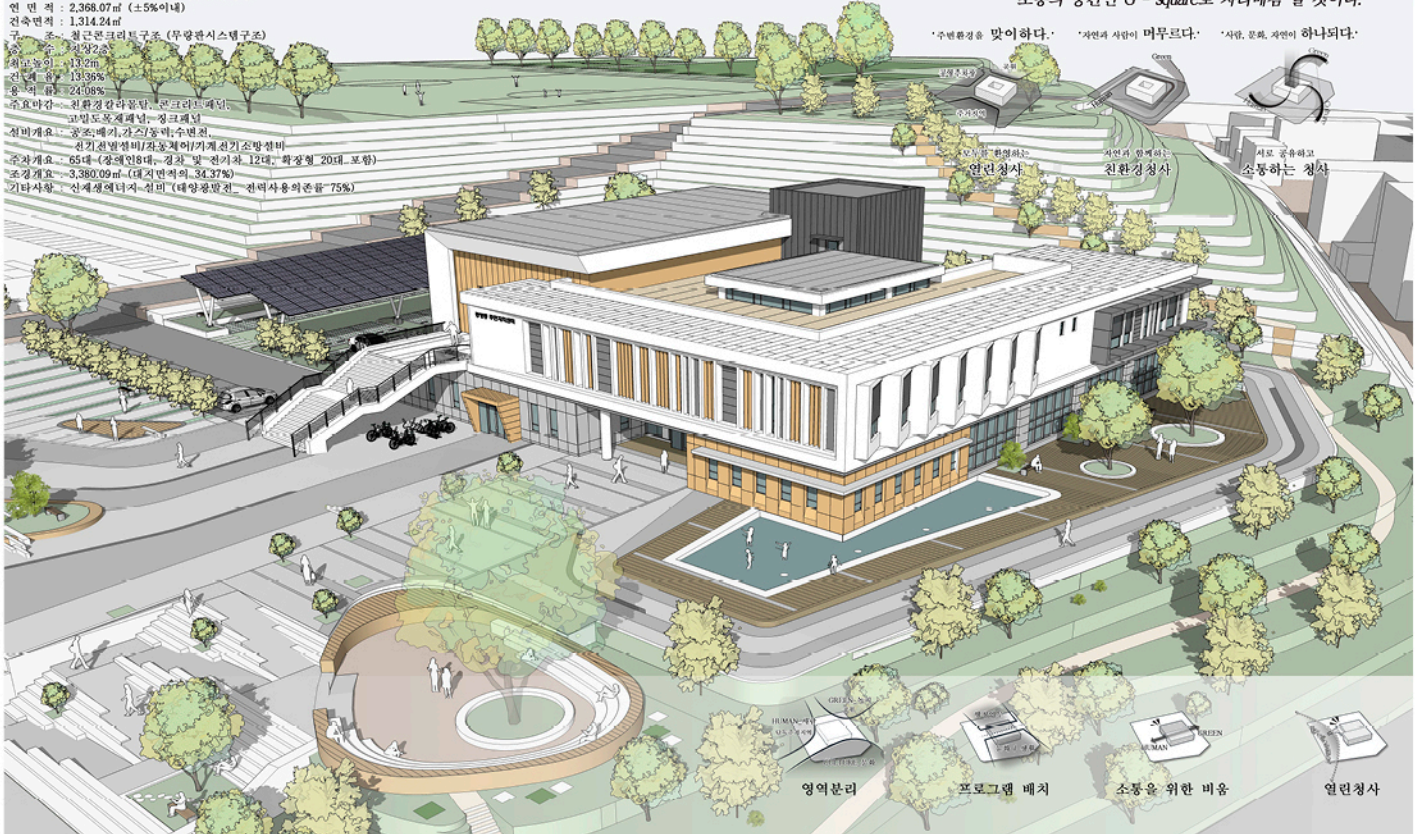
### 우수작

최시화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가온

#### 건축개요

대지위치 :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H1블록  
 대지면적 : 9,835㎡ (2980평)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연 면 적 : 2,368.07㎡ (±5%이내)  
 건축면적 : 1,314.24㎡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무연관시스템구조)  
 층 수 : 지상2층  
 연면적률 : 13.96%  
 건폐율 : 24.08%  
 주요 마감 : 친환경강판외관, 콘크리트제단, 고밀도복합제단, 경크레션  
 준비개요 : 공조배기, 가스/동력/수변전, 전기전열설비/작동제어/기계설비  
 주차개요 : 65대 (경원인8대, 경차 및 전기차 12대, 화장형 20대, 포함)  
 준공개요 : 3,380.09㎡ (대지면적의 33.97%)  
 기타사항 : 산세제에너지-설비 (태양광발전, 전력사용의존율 75%)

광영지역 주민을 위해 비위진 장소가 도시적 맥락에서의 걷과 사람, 자연, 그리고 문화가 유기적으로 하나되어 도시의 상징적인 복합커뮤니티 공간이자 소용의 공간인 G-square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주민편중을 맞이하다.' '자연과 사람이 머무른다.' '사람, 문화, 자연이 하나되다.'

인공을 환영하는 열린정사  
 자연의 일체화 친환경정사  
 새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정사

영역분리 프로그램 배치 소통을 위한 비움 열린정사



#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페이퍼 컴퍼니와 메뚜기 같이 움직이며 설계비를 흐리는 시행사와 건축주들, 그리고 면허를 대여하는 건축사들을 근절하는 일입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본지에서 지난 호부터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순으로 회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호(104호/광주 강현구 회장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올해 3월 7일 전라남도건축사회(이하 전남건축사회)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어 3월 12일부터 회장직무에 돌입한 조연준 회장(건축사사무소 창조)이다. 다음은 지난 7월 26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전남건축사회 회장실에서 강동영 편집인과 박종호 전남지역 부편집인이 조연준 회장을 만나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 전남건축사회장으로 취임 150일을 맞이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이 성격이 급해서 제 개인적인 일은 신속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 일은 전체 회원들을 생각하며 한 가지 일에도 매사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50일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지금 회장 임기는 3년이지만 이전 임기처럼 2년이었던다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회원들을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회장 취임 전후로 개인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무감과 소명의식,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업무에 시달리다가도 '아, 내가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회장이 되고 나서 보니 참여해야 하는 대외적인 행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회 사무실은 무안에 있고, 저의 개인사무실은 여수에 있다 보니 이동시간이 길어 힘듭니다. 취임 초기에는 개인 사무실을 일주일에 3번, 협회 사무실은 2번 방문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으나, 도내 지역 건축사회 여러 행사 참여와 회원들의 여러 민원 처리에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잘되어야 하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 협회 일에 매진하고 있고, 또 회원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등 저의 대외적인 역량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 취임 후 150일간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것은 우리 업무와 관련한 전문가들과의 MOU 체결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가장 약한 분야가 법과 세무 분야입니다. 특히 법적인 분야에서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12일 광주에 위치한 법무법인 민 광주사무소에서 박철 변호사와 MOU를 체결하고, 회원사들이 무료법률상담 및 수입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세무분야에서도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조만간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의 위상 강화와 함께 회원들의 대외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얼마 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과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7월 초에는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 위치한 선두마을을 방문하여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지원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회원사들의 대관업무와 관련해서도 여러 민원 사항을 듣고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약 중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일들과 공약 외 추가로 추진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페이퍼 컴퍼니와 메뚜기 같이 움직이며 설계비를 흐리는 시행사와 건축주들, 그리고 면허를 대여하는 건축사들을 근절하는 일입니다. 전남도 내에서 그런 사무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활동이 어려우니 관광지가 많은 이쪽으로 내려와 소위 전남지역 건축업계의 물을 흐리는 건축사들을 일벌백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도회가 주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교육시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인력수급을 해주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님과 함께 건축사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가희망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뭉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자체 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남도내 각 시·군의 심의 및 심사 담당자들을 만나, 심의위원 위촉 시 우리 건축사들이 위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같은 전문분야 심의 시 비전문가들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심의내용이 재번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지난 7월 26일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전남건축사회 회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지난 6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2018년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과의 교례회 참석



지방선거 당선자 교례회에서 서삼석 국회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 당선자와 교류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변호사 사무소와 자문협약 맺어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통해 개선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수지역에서 폐업을 하는 두 분의 건축사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공로를 기리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행사를 보면서 우리 도회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생일이나 개업 몇 주년, 폐업 등 기념되거나 기릴 만한 날이 있다면, 축전이나 화분을 보내주는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우수한 활동을 한 회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하는 포상복지시스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전남도 내에 각 지역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내의 건축사 회원들을 대변하는 회장이지만 영향력이 적은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한 지역 관공서나 단체를 방문할 때 그 지역의 회원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장 홀로 혼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한다면 그 영향력은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운 건축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지방이든, 중앙이든 똑같은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로 지방이라고 무시당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우리 후배들이 분명히 혜택을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 회원들에게 어떠한 회장으로 남기를 바라시는지

이번에 돌아가신 노회찬 국회의원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은 것이 양심에 걸려 죽음을 택한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건축사의 자긍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겪게 된다면 같은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회원들에게 '조연준 회장은 지금까지 그 어떤 회장들보다 청렴하고 바른길을 걸어왔고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라는 말을 듣는 회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회원 외 일반 도민들이나 대외 인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반 도민들이 '건축사'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건축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며, 국민들을 위해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건축사들도 전문가로서 자존감을 지켰으면 좋겠고, 대외인사들도 특히 정치인들이 국가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과 전통을 지켜 나가기 위해 우리 건축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았으면 합니다.

취재 : 강동영 편집인, 박종호 전남 부편집인 / 정리 : 곽승국 전남 기자 gkira@empas.com



**광주건축사회 주관, 제15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사생대회) 개최 안내**

- 공모주제**
  - 공과 행복이 있는 건축물 그리기
- 참가대상 및 참가부문**
  - 광주 소재 유치원생, 초등학교(저학년 1~3학년/고학년 4~6학년)
- 대회 일시 및 장소**
  - 대회일시 / 장소 : 2018. 9. 29(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18. 9. 3(월) ~ 9. 14(금) PM 6:00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가급적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 방법**
  - 참가비 : 무료
  - 참가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이름, 학교명(유치원명), 학년/반/번호,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접수기한 내 제출 ☞ 이메일 : [gjkira@empas.com](mailto:gjkira@empas.com) / 담당자 : 광주건축사회 광승국 대리
- 대회경연방법**
  - 방법 : 각자 가져온 그림재료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크레파스, 물감, 붓 등 화구 개인지참)  
☞ 대회용 도화지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8절지와 초등학교 고학년 4절지는 주최 측에서 일괄제공 : 1인당 1장 ※ 일반 도화지는 실격 처리됨
- 수상자 발표 및 시상내역**
  - 수상작 발표 : 2018. 10. 4(목) <http://gjkira.kira.or.kr>를 통하여 발표
  - 시상식 : 2018. 11. 3(토) 11:00 예정(장소는 개별통지)
  - 전시 : 2018. 10. 31(수) ~ 11. 4(일) 중(변경될 수 있음/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 시상 : ① 초·초고
    - 최고상(각2점씩 총 4점) : 광주광역시교육감상 및 기념품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상금 없음
    - 금상(총 6점)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상 및 15만원 상당 상품
    - 은상(총 8점) :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상 및 10만원 상당 상품
    - 동상(총 10점) :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상 및 5만원 상당 상품
    - 입선(약간명)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상
  - ② 유치원
    - 최고상 1점 :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상 및 20만원 상당 상품
    - 금상 2점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상 및 15만원 상당 상품
    - 은상 3점 :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상 및 10만원 상당 상품
    - 동상 4점 :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상 및 5만원 상당 상품
    - 입선(약간명)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상
- 주최 / 주관 / 후원**
  - 주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후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 문의**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광주건축사회 주관, 제15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개최 안내**

- 출품작품**
  - 작품내용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내 우수 건축물(건축물 / 공간 등)  
☞ 2017년 이후 촬영 사진에 한함
- 출품자격**
  - 응모자격 : 건축과 도시, 사진에 관심 있는 모든 자
- 작품접수**
  - 일 시 : 2018. 9. 17(월) ~ 10. 12(금) PM 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작품규격 : 12"×17" 사이즈 사진 (규격 엄수)
  - 제출서류 : 필름 원판 또는 JPG 원본파일과 참가신청서 제출
  - 등 록 비 : 없음 (1인 2작품 이내)
  - ※ 참가신청서와 작품설명서는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 작품설명에 가산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우. 612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 입상작 발표**
  - 2018. 10. 18(목)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게재
  - 입상작품은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기간(2018. 10. 31 ~ 11. 4 /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중 전시됩니다.
- 시상**
  - 대 상(1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2점)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수상(4점)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장려상(10점)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입 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 ※ 최우수상 이상 상금은 원천징수 세액을 포함합니다.
- 주최 및 주관**
  - 주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광주광역시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후원 : 광주광역시
- 문의**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Tel. 062-521-0025~6 E-Mail : [gjkira@empal.com](mailto:gjkira@empal.com)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남대 건축학부 고성석 교수, 산업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에 임명  
지난 8월 1일 전남대 공대 2호관 영명홀에서 취임식 가져**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고성석 교수가 동대학 산업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에 임명됐다. 지난 8월 1일 동대학 공대 2호관 영명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학장 업무에 돌입했다.

고성석 학장은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5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전임강사와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했고, 2003년 8월부터 전남대학교에서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건설관리학회 호남지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광주·전남 지역에서 건축시공과 건설안전, 건설경영 관련 연구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다.

**나무심는 건축인, '2018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오는 8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대상으로 시각 부문, 공간 부문 시상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나무심는 건축인'과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이 공고됐다.

오는 8월 31일까지 공모되는 이번 공간상은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응모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상으로 아름다운 도시문화 경관에 기여한 공개공지와 담장가로 및 쌈지공원 벽면 및 옥상녹화, APT 등이다.

작품 제출은 A3 규격 내에 설명서와 장소가 찍힌 사진 포함 5매 이내를 첨부하여 나무심는 건축인(서구 치평동 1208번지 골든빌 오피스텔 310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분야는 시각 부문, 공간 부문 3점 이내이며 입상한 건축주에게는 광주광역시장이 전달되고, 건축물에는 기념 동패가 부착된다.

입상작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전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심는 건축인(062-383-0925)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순천대 건축학부 학생들, 광주·전남권 각종 공모전서 잇따라 수상**

최근 개최된 광주건축대전과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 수상하며 주목



순천대학교 건축학부(학부장 남호현)는 최근 개최된 광주건축대전과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먼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최한 제1회 광주건축대전에서 김정현 학생(4학년)의 'Theater in the Shield', 이혁(5학년) 'YEOSU JANG-DO MIXED USE DEVELOPMENT PROJECT', 장수경(4학년) 'NAEIL-BASECAMP' 작품이 특선에, 고아영(2018. 2. 졸업) 'HIGH HILL', 문선민(4학년) 'Project CUT IN', 박지은(4학년) 'A Rest Area In The Busterminal(목화정)' 작품이 입선에 오르는 등 총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사)한국미술협회 전라남도지회가 주최한 제54회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 김두환 학생(5학년)의 'RAISING A SHOP', 김정현(4학년) '받아들이다J친환경오피스', 이혁(5학년) '주유소\_머무름이 있는 장소'로 3명이 건축분야 특선을 수상했다. 김나현(4학년) 'On the same page', 김윤정(5학년) '오후의 파동', 문재원(4학년) '삶의 온도(어 템프 오브 라이프)' 박지은(4학년) 'Flow in', 신정호(4학년) '햇빛에 대응하다', 안혁(4학년) '집중\_백색소음', 이창원(4학년) '즐거움을 찾아서', 장수경(4학년) '클리나멘', 주승연(5학년) 'REGRESSION SPA', 주창환(4학년) '세포의 세포벽', 최상원(5학년) '페이크', 홍승완(4학년) '나선형\_도시를 산책하다'로 총 12명이 입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남호현 학부장은 "순천대 건축학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21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차세대 건축계 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과 공모전 수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랑에서 \_ 마흔다섯 번째

일본의 농촌을 다녀와서

지난 7월, 한국농촌건축학회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한국농촌건축학회는 일본건축학회농촌계획위원회와 매년 상호방문하며 학술연구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북 무주군에서 열렸고 금년에는 일본 차례였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 한일교류회는 양국의 농촌건축 및 농촌계획 전문가들이 모여 학술연구 및 현장 활동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일본방문에는 3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동행했고, 4박 5일 동안 일본 동북지방의 농촌을 돌아보며 학술대회도 개최하는 뻘뻘한 일정이었다. 이와테현 오후나토시(大船渡市)에서는 쓰나미의 공포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노력과 의지를 보았고, 야마가타현 이데정(飯豊町)에서는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과 전문가 및 행정이 어울려 마을 만들기를 해온 그들의 집념과 끈기를 느꼈으며, 후쿠시마현 가네야마정(金山町)에서는 전통건축에 대한 지역의 자긍심과 지역의 건축문화를 일관성 있게 이끌어주는 건축가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야마가타현 신조시(新庄市)에서는 지역 자산을 자원화하여 홍보에 열을 올리는 그들의 송고한 맘을 보았다. 또한, 한일교류행사의 꽃인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연구자들의 농촌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배놓을 수 없는 행사 중 하나인 농촌민박에서는 일본 농민들의 몸에 배인 친절과 배려를 또다시 절감할 수 있었다.

몇 차례 되진 않지만, 일본은 농촌에 관련된 목적 외에는 방문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감탄과 부러움의 연속이었다. 주민들은 주민의식과 자긍심 그리고 참여의식으로 그들의 마을을 지키고 가꾸는 데 앞장서고 있었고, 공무원들은 정책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서비스를 아끼지 않고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능력과 소신 그리고 열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특이한 부러웠던 점은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예우였다. 가는 곳마다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기꺼이 안내와 설명에 나섰다. 그 행동과 내용에서 전문가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데정의 경우는 스승과 제자가 대를 이어 40년째 자문을 하고 있었으며, 가네야마정의 경우에는 세 사람의 전문가들이 3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농촌계획과 건축 분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지역의 전통성은 계승하면서도 차별화되고 일관성 있는 지역개발이 이뤄졌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전문가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솔직히 알미운 생각도 들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책감과 사명감도 느꼈다. 농촌전문가라 자칭해왔지만, 그만한 자질과 역량 그리고 열정이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삶의 공간을 다루는 전문가인 건축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농촌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촌 역시도 삶의 공간이 집합되어 있기에, 건축사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기 때문이다. 그렇듯 이번 한일교류회는 많은 느낌과 숙제를 남겨주었다.

자문위원\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법/령/소/식

□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77호 / 2018년 7월 31일)

▶ 주요 내용

-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과 확인 시기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바닥 부재의 철근 배치를 완료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 나.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 인정 시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다.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안 제91조의3)
    -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 대상 확대

□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78호 / 2018년 7월 31일)

▶ 주요 내용

- 가. 건축신고 시 제출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 건축신고 시에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 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표 2)
    - 구조계산서 항목에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를 추가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 다. 착공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지 4의2)
    -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도의 주요 부분 상세도면을 배근 상세, 접합 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조 안전 확인 시 지반상태를 고려하도록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 소규모 건축물 및 인접 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박종혁, 설혜순, 정영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월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주)씨엠엑스 350,000원
- (주)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 느낌 \_ 배성훈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힐링과 YOLO 그리고 소확행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인 말로 크지만 불확실한 행복보다는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나 그러한 행복을 말한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전에는 ‘YOLO’(You Only Live Once)로 한동안 떠들썩하였고, 그 이전에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세 단어 모두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나온 말이지만, 각기 차이점을 가지며 등장한다. 힐링은 취업, 노력, 성공의 압박 속에서 온전히 나를 위하는,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

YOLO는 힐링보다 과감한 느낌을 준다.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당신을 위해 소비하라. 혹시 지친 일상 속에서 당신을 위한 돈이 아깝다면 생각해보라. 당신은 단 한 번만 산다.’ 특히 YOLO는 우리나라에서 과소비적인 느낌을 가진다.

YOLO가 소비 지향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SNS이다. 대표적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외여행, 화려한 호텔, 고급스러운 음식 사진에 YOLO를 해시태그하며 올려댄다. 우리들은 이런 사진들을 보며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며 자신에게 소비를 부추긴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는 갈수록 상향화되어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모방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더불어 행복의 기준이 SNS 속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린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우리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소확행이 등장한다. 소확행은 거창할 필요 없다. 원래 소확행이란 말은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과 같은 작은 즐거움으로 소셜에서 탄생하였다.

나는 소확행을 찾는 것은 나를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SNS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없다는 것이 딱 마음에 든다.

책 소개 \_ 박유현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전공

상실의 시대 (원제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저 / 유유정 역 / 문학사상사 / 2010. 07. 20.

상실의 시대를 보면 중년의 작가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써 내려간 느낌을 받는다. 그 점을 생각하며 읽다 보면 어느새 청년 ‘와타나베’와 함께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다. 이번 책의 특이한 점은 모든 등장인물이 주인공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다 각자의 삶에 스토리가 있고 ‘와타나베’는 그걸 책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그들을 지켜보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와타나베’는 담담히 바라보고 대처한다. 큰 방향도 슬픔도 보이지 않지만 글 후반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것은 ‘와타나베’이다.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꿈과 이념, 사랑과 우정, 젊은 시절 누구나 겪는 이 걱정 ‘와타나베’가 있고 우리의 청춘 또한 그곳에 있다. 젊은 날의 사랑에 대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와타나베’라는 인물을 통해 섬세히 표현한 책으로 밝은 요소보다는 어두운 요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사랑은 분명히 있고, 오히려 그런 어두운 상황이 있기에 사랑이 더욱 빛날 수 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제목이 상실의 시대인 만큼 끝까지 혼란스러운 주인공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혼란 또한 언젠가 끝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긴다. 죽음이란 우리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삶과 공존하고 있다는 말 또한 정말 공감가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 작가의 섬세하게 표현한 문체가 감성선을 더욱 극대화 시키고 끌어올린 것 같다. 누구나 겪을 법한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이 글은 처음 읽었을 때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고 나의 생각이 편협하진 않았나고 믿을 갖게 하고 다양한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 처음엔 어렵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용기 내서 한 번 더 읽고 계속 읽다 보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누군가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말이 있듯이 남을 바라볼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바라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식중독

개똥도 좋고  
외똥도 좋고  
썩은 생선 내음도 좋고

무엇하나 가리지 않고  
쌍꺼풀이 그물질을 하고

산이고  
들이고  
가리지 않고  
보름자리를 뜨는 무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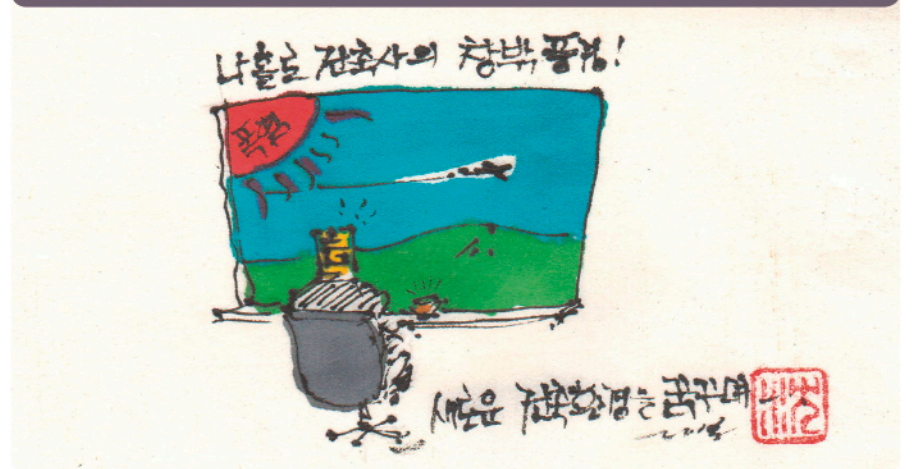
다 살기 위해서  
말 못하는 미물로 남아  
제 할일을 하고 있다

남의 살 태워 먹는 맛이  
더 좋다고

입가에 피도 안흘리며  
남의 살을 씹으며

거품들을 마시고 있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당신의 공사감리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감리자 필수앱!! 터치 완성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스마트감리앱



PC로그인 [www.archim.kr](http://www.archim.kr) 콜센터 02 3462 1336  
[문의] 이기상 건축사 (010) 8276 6158

